# '하쿠나 마타타'의 섬,
# 탄자니아

글 **채지형** 여행작가, http://www.traveldesigner.co.kr

속도의 세계에서 시계가 느리게 가는 잔지바르 섬을 향하는 것은 다른 세상으로 진입하는 것과 같았다. 인도양에 보석처럼 떠 있는 탄자니아의 잔지바르 섬. 이 곳 사람들은 "하쿠나 마타타(괜찮아)"를 입에 달고 산다. 약속에 늦어도, 억울하게 사기를 당해도 "괜찮아, 괜찮아"라며 넉살좋게 웃는다. 게다가 웬만한 일에는 얼굴을 찡그리는 법이 없다. 그들의 긍정 에너지는 여행자들마저 감염시킨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꺼내들던 일기장과 볼펜도 가방 속에 콕 넣어버렸다. 내일하면 되니까.

잔지바르

## 아랍과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의 절묘한 조합

잔지바르 섬은 아프리카에 속해있지만 이슬람의 풍취가 느껴지는 독특한 섬이다. 길거리를 걷다보면 코피아(이슬람 전통 모자)를 쓴 남자들과 대담한 원색의 차도르를 걸치고 있는 여인네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아라베스크 문양의 카펫이며 항구 앞에서 파는 진한 이슬람식 커피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작은 마을로 시간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잔지바르라는 이름도 페르시아어의 잔지(흑인)와 바르(해안)를 합한 것. 잔지바르는 아랍인의 손을 거쳐 한동안 노예 집산지로 번영하다가, 30여 년간 오만 제국의 수도 역할을 했다. 이후에는 아랍인 술탄이 이곳에 거주하다 1964년 탄자니아와 통합되면서 여러 문화가 어우러진 오늘날의 모습이 됐다.

잔지바르 섬 여행의 출발은 스톤타운이다. 스톤타운은 가장 번화한 곳이기도 하면서 잔지바르를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곳이다. 온통 회벽 건물이 크지도 않은 시내를 채우고 있으며 그 건물들 사이에는 좁디좁은 길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 야릇한 분위기, 정돈되지 않은 길, 헝클어진 머리 같은 오묘함이 스톤타운을 에워싸고 있다.

스톤타운은 19세기 초 아랍 지배자들이 노예무역 시대에 남겨놓은 풍요로운 유적들을 품고 있다. 건물도 대부분 아랍식 가옥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미로처럼 퍼져 있는 길도 아랍식이다. 골목 끝마다 등장하는 모스크와 이슬람식 생활을 위한 물건을 파는 시장들은 이곳이 아프리카인

스톤타운

지, 중동의 어느 나라 뒷골목인지 헷갈리게 만든다.

온몸을 부이부이(이슬람 전통 의상)로 꽁꽁 감춘 이슬람 여인들, 수시로 들리는 끝없는 기도 소리.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건물들 사이의 골목을 헤매다가 차도르로 얼굴을 가린 이슬람 여인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기분이 야릇해진다. 멍하니 잠시 서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알리바바가 나오는 전설의 동화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다. 이것이 바로 잔지바르의 노른자 '스톤타운'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다.

## 따뜻하고 여성적인 능위 비치

스톤타운과 함께 잔지바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북쪽에 있는 능위(Neungwi) 비치다. 이곳에서 보는 바다는 한없이 여성적이고 따뜻하다. 게다가 동력이라고는 전혀 쓰지 않고 바람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배 다우(dhow)가 바람에 두둥실 떠가는 것을 보노라면, 여백의 미가 흐르는 풍경화 한 폭을 감상하는 것 같다. 투명한 바다에 잔지바르의 대표적인 향신료 클로브(clove) 향이 묻어나는 공기. 어느새 머리가 맑아지고 귀가 씻겨진다.

잔지바르 섬이 유럽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높아서 그런지 호젓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멋진 레스토랑도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밤이 되면 낭만적인 촛불이 흔들리는 테이블에서 싱싱한 해산물이 올라간 피자를 맛본다. 이때 바람이 슬쩍 머리카락을 건드려주기라도 하면 기분은 배가된다. 여기에 아프리카 청년들의 유연함과 에너지를 엿볼 수 있는 아크로바틱 공연도 수시로 펼쳐져 밤마저 짧게 흘러 버린다.

## 문에서 보는 잔지바르의 문화

잔지바르에서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는 '문' 구경이다. 옛날에는 문의 크기와 사용하는 나무의 재질로 사회, 경제적 지위를 나타냈는데, 열쇠가 무겁고 목재가 두꺼울수록, 그리고 천정이 높을수록 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다고 한다.

잔지바르 목수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 감탄하며 문을 쫓아가다 보면 얼마안가 길을 잃고 만다. 길을 좀 잃으면 어떤가. 어차피 인생이란 직선으로만 가는 것도 아닌데… 이곳에서는 길 위에 은근하게 깔려있는 향을 맡으며 마음껏 헤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 여.행.정.보

* 가는 길 = 탄자니아 제1의 도시 다르에르살람에서 배로 2~3시간 거리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갈 때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 비자 = 탄자니아에 들어갈 때 비자를 받아야한다. 육로로 이동한다면 국경에서, 항공으로 들어간다면 공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50달러. 탄자니아 비자를 받았다고 끝은 아니다. 잔지바르 섬이 탄자니아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잔지바르에 들어갈 때 입국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별도의 비자비용은 필요 없다.
* 환율 = 탄자니아는 실링(Tsh)을 사용한다. 1달러=약 1600탄자니아 실링(Tsh) 2011년 9월기준.
* 시차 = 우리나라보다 6시간 늦다.

한가로운 능위비치

한가로운 능위비치

잔지바르 입국심사